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창업가의 특성요인에 관한 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김윤선 (중앙대학교 창업학과 박사수료)*

이일한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여성창업활성화를 여성창업가의 특성과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탐색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8명의 여성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창업태도(독립욕구, 개발욕구, 호의적여건), 창업진입률, 창업동기, 창업활동과 제약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여성창업가들의 창업태도는 자기만족을 느끼는 데서 성공의 경영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며, 독립과 자아실현이 우선시 하는 특성이 있으며, 창업에 대한 주변의 호의적 여건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 창업진입률에서 남성과의 개인적 차이, 사회적 구조요인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창업동기는 도전정신과 자기만족감, 일과 가족의 균형을 맞추려는 욕구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성창업가들은 자원접근 측면에서는 남성창업가와 여성창업가 간에 인식 차이가 거의 없으나 네트워크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성창업가의 주요 업종은 소규모 기업이고 이익률이 낮은 업종, 성장과 매출액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창업활동의 장애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겪는 경험이나 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여성창업가의 경우 여성만의 창업 장애요인은 높지 않으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여성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의 창업은 남성기업의 창업보다 기업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에 여성창업이 여성의 사회적 경험이나 직장생활에서의 관리능력에 의한 기회적 창업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창업도 활성화하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여성창업가, 창업태도, 창업동기, 창업활동, 제약조건

1. 서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창업은 지난해 기준 66만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1%의 증가세를 보였다¹⁾.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제 18661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여성기업활동촉진계획” 수립을 1999년 이래 실시하여 여성의 기업활동과 창업 기반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홍정임·김선우, 2021). 정부는 1999년부터 여성기업과 여성창업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관련법 내 조항과 별개로 독립된 법률로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양현봉 외, 2016).

해당 법률은 전체 21개의 조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의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사항으로 제8조에 「중소기업창업지원

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자금지원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등을 제정하고 있다(양현봉 외, 2016).

이에 여성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 CEO가 남성 CEO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이는 여성 창업기업의 성장률과 생존율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경제연구소 김보례 선임연구원은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 후 성장 중인 여성기업 수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지난해 여성창업기업의 투자 유치금이 전체의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적인 예로 여성 창업 기업들의 성장이 전체 투자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으며, 투자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 주저자, 중앙대학교 창업학과 박사수료, kysluck01@naver.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lih2114@cau.ac.kr

· 투고일: 2022-07-10 · 수정일: 2022-10-24 · 게재확정일: 2022-10-26

1) www.kidd.co.kr 기사인용

현재의 상황을 나타낸다.

더불어 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부터 여성이 기업 활동시에 직면하는 사회적 환경과 성향이 남성과 다르다는 것을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홍정임·김선우, 2021). 이에 반해 국내의 여성 창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의 창업분야에서는 창업가 또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기업가 특성에 대한 학계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성 창업가를 대상으로 특성을 도출하고자 진행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에 놓여 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되고 여성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여성창업가의 특성 또는 여성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양현봉 외, 2016).

전 세계적으로 여성창업에 대한 관심과 여성창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이유는 인구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으며, 여성의 활발한 경제참여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경제의 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고용이슈와 같은 사회문제를 더불어 해결 할 수 있는 과정의 필수요소로 여성창업의 부각과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성창업가의 특성에 대해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창업의 활성화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미래의 예비 여성창업가에게 심어주고, 국내의 정부를 비롯한 창업 유관기관의 여성창업에 대한 관심을 상기하여, 실질적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제언을 통해 추후 국내 여성기업/여성창업에 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여성창업에 대한 연구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해 새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7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황보윤 외, 2018). 여성창업은 그 주체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 미래의 이윤을 목적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서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목표를 세우며, 적절한 시기에 인원, 자본, 원자재, 설비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제품을 생산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안상철, 2011)

오지선·김영환(2016)은 국내 기존 연구에서 여성기업/여성창업에 대한 이론적 틀이 부족한 원인은 “여성기업가정신(Women entrepreneurship/female entrepreneurship)”의 개념이 무

엇인지 잘 정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여성창업의 성공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연구로 비즈니스생태계 측면에서 환경, 시장, 경영, 자금, 모성상태로 구성된 5M 프레임워크가 있다(Brush et al., 2009).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환경(macro/meso environment)은 기회 식별 및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상황, 문화, 사회적 가치 및 태도, 기업 조건, 개인 상황 등에 관한 것이며, 시장(market)은 시장 접근 및 기회 식별 가능성, 경영(management)은 경영 관리, 자금(money)은 재정자원의 가용성과 접근을 각각 나타낸다(홍정임·김선우, 2021). 마지막으로 모성상태(motherhood)는 여성 창업가의 사회적 맥락과 연계된 가정 및 가족 자원, 정서적 지원, 학습 가능성에 의존하는 학습 네트워크를 나타낸다(Cabrera & Mauricio, 2017; 공혜원·김효선, 2018; 홍정임·김선우, 2021). 창업의 과정의 시작은 동기부여(motivation)로부터 진행되며 기회식별(opportunity identification)과 자원 확보(resource acquisition) 및 성과창출(performance and ultimately success)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Baron & Henry, 2011; 홍정임·김선우, 2021). 이에 추가하여 DeTienne(2010)은 최종 이익을 거두는 중요 단계인 회수(exit)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홍정임·김선우, 2021).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경영협회(AMA: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는 여성창업가의 특성을 8가지로 제시하였다(DOC, 1986, pp.9-12). 첫째, 사업의 시작을 지원을 도와주는 가족들 가까이에서 한다. 둘째, 여성창업가는 남편의 지지를 받으며 관리직 또는 전문직에 있다. 셋째, 기업가적 성향이 일찍부터 강하게 나타난다. 넷째, 여성창업가는 고학력인 경우가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다섯째, 여성창업가는 기업에 매우 헌신적임은 물론, 어려운 업무를 해결함에 탁월한 역량을 나타낸다. 여섯째, 여성창업가는 본인의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나타낸다. 일곱째, 자신의 삶에 있어 다양하게 변화하고, 종합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과 태도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박종복·양현봉, 2014; 김지황 외, 2015).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로 국내의 여성창업가의 특성과 같이 확인하였다(정유정, 1997). 첫째, 대부분이 높은 학력자로서 대다수가 직장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장생활의 경험과 창업 분야간의 관련성 여부를 묻는 사항에는 “무관하다”라는 응답이 60.4%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한 창업동기로는 경제적 독립, 새로운 삶에 대한 추구, 자아실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창업가의 성격은 세심함을 소유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를 잘 파악하는 경향을 보이며, 종업원과의 친근감 형성을 장하는 것, 신용에 관한 책임감이 높은 점이 남성창업가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금조달이 순조롭지 못한 점과 기술인력의 확보의 어려움, 여성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이 확인되었으나, 창업활동을 함에 남편

2) www.kidd.co.kr 기사인용

이나 가족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정유정, 1997).

국내의 여성벤처기업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표적인 연구로, 여성벤처기업 CEO 12명에게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 5가지와 충분조건 5가지의 평가요소를 확인하여 성공을 위한 자질역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여성벤처기업 CEO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조대우, 2004).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며, 여성기업/여성창업에 대한 연구의 주제는 더욱 다양해지기 시작했으며, 여성기업/여성창업을 종속변수로 혹은 독립변수로 한 보다 체계적인 양적 분석을 이용한 실증 연구가 증가하였다(임이숙, 2020). 최탁열·이상석(2007)는 여성창업자의 특성을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업이 정신, 관리적 능력, 기술적 능력으로 하위 요인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기업성과를 실증분석 하고자, 전국의 각 지역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106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여성창업연구에 대한 실증연구가 미진했던 시기에, 전국의 여성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인구통계적 특성 능력 중 학력이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관리적 능력, 기업이정신, 기술적 능력이 매출액, 시장점유율,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탁열·이상석, 2007). 한편, 여성기업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이호숙(2015)은 남녀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적 맥락의 차이를 무시한 채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10개의 사례기업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심층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여 여성창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창업에 참여한 여성의 기업가정신과 젠더전략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양현봉 외,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창업가의 성공 의미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양적 성장과 동일한 사항으로 분류하거나,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이상석, 2006; 최탁열·이상석, 2007; 박종복·양현복, 2014; 홍정임·김선우, 2021).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여성창업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임이숙(2020)은 여성기업/여성창업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해외의 연구들을 창업과정-창업으로의 진입, 창업 활동, 창업기업의 경영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검토하여 국내의 연구의 한계를 비교 및 확인하였으며, 앞으로의 국내 여성기업/여성창업에 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국내 여성창업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창업가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여성창업가의 특성 도출을 하고 여성창업활성화에 인사이트(Insight)를 제공하고자 진행하였다.

2.2 창업태도

전 세계적으로 창업활동에 참여하는 확률을 성별로 나누어 확인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현상이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De Bruin, et al., 2007; Koellinger, et al., 2013; Langowitz & Minniti, 2007; Minniti, et al., 2005; 임이숙, 2020). 이는 자영업에서뿐만 아니라(Hughes, 2005; Klyver, et al., 2012; Lerner, et al., 1997), 기술창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Ding, et al., 2006; McMillan, 2009; Murray & Graham, 2007; Rosa & Dawson, 2006), 해외,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 현상에 대한 원인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임이숙, 2020). 우선 자기효능감의 부족(Scherer, et al., 1990; Verheul, et al., 2005), 개인 선호의 차이(Baron & Ward, 2004), 창업 기회 인식의 차이(DeTienne & Chandler, 2007; Eckhardt & Shane, 2003; Gupta, et al., 2014), 위험회피 경향(Masters & Meier, 1988), 성 고정관념(Gupta, et al., 2009; Sexton & Bowman-Upton, 1990) 등 개인적 수준의 요인이 지적되어왔다.

이를 지지해 주는 선행연구로, Smith & Miner(1984)는 성별을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기업가들이 남성에 비하여 사회화과정으로 인해 기회추구형 기업가이기 보다 장인형 기업가가 많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Kalleberg & Leicht(1991)의 878명의 남성기업가와 261명의 여성기업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감과 통제 면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관리 전략면을 보면 남성기업가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중시하는 반면 여성기업가는 품질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국내에서의 여성창업의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창업기업 106개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 여성창업기업이 처한 환경과 경영자 특성, 그리고 협력 활동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여성창업기업의 성과에는 기업의 내부 환경요인과 경영자의 관리 능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이에서 기술협력 활동과 사회협력 활동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중덕 외, 2004).

사회학적, 여성학적 관점에서는 창업의 진입장벽으로서의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 주목해왔다(임이숙, 2020). 즉, 여성은 창업교육의 기회나 창업 관련한 경험이 남성에 비해 적고(Boden & Nucci, 2000; Dolinsky, 1993), 학부과정에서 창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인 과학이나 공학, 상경계열을 전공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Brush, 1997; Menzies, et al., 2004), 직업 선택을 할 때 창업을 고려하는 경향이 낮다는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창업교육의 역할과 관련한 성별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왜 여성이 창업 활동에 흥미를 덜 느끼게 되는지, 창업 의도를 덜 갖게 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임이숙, 2020).

2.3 창업동기

창업가에게 있어 창업동기는 공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창업의 시발점으로 작용하며, 크게 창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긍정적 계기로 시작하는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s)과 부정적 계기로 시작하는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s)으로 구분하고 있다(임이숙, 2020). 여성과 남성 기업가들의 동기를 비교한 결과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s)과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s)의 조합이 두 성별 모두에 동기를 부여하지만 이러한 동기의 영향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irkwood, 2009).

더불어 여성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s)으로는 유리 천정(glass ceiling)이 있으며, 이는 여성 중간관리자들의 승진을 어렵게 하는 등의 직장 내 차별로 여성의 사회활동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의미한다. 또한, Brush(1992)의 연구는 여성이 직장가 가정의 양립을 위해 창업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즉 직장가 육아, 또는 가사를 병행하기 어려워 일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위해 창업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동기의 전통적인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s)과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s)의 범주가 여성의 노동과 가정생활의 복잡성을 무시하며, 서로를 거의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법적 프레임 워크 이외에도 여성 기업가의 환경을 반영한 창업동기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Kirkwood, 2009; Poggessi et al., 2016).

한정화·백윤정(2003)은 국내 여성벤처기업인의 창업동기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군집분석 결과 이들의 창업 동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독립 욕구, 개발 욕구, 호의적 여건으로 보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독자적 기업 운영권, 호의적 여건활용 기업군과 난관 극복형 기업군으로 나누었다. 이들 군집 간에는 배태조직에서의 직위, 창업 당시 연령, 창업시 이용한 정보의 다양성, 고객 기업과의 협력관계, 가정과 직장생활의 갈등, 기술인력 증가율 및 전반적 기업성과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한정화·백윤정, 2003). 이는 기존 문헌 고찰 및 국내의 여성벤처기업인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창업동기요인을 도출하고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임이숙, 2020).

양인숙 외(2004)의 연구에서는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은 일반 여성의 창업동기와 달리 남성 벤처창업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여성 벤처창업자는 직장에서의 제한된 승진기회나 불안정한 직장생활 등과 같은 부정적 창업 촉진요인(push factor)보다는 긍정적 창업 촉진요인(pull factor)에 의해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정화·백윤정, 2003).

이상석(2006)은 여성기업의 창업 동기를 창업기회와 직무 불만, 독립성과 소득, 기업가적 충동과 자아실현으로 상세하게 분류하고, 기업의 성공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가족의 지원과 문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이를 수반하는 사업지식,

제품경쟁력 및 경영능력과 더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의 활용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여성기업의 창업 동기는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의 작용과 동시에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업성공의 동기는 것은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상석(2006)은 여성기업의 성공요인이 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창업 동기가 연쇄적인 작용을 하여 창업의 성공 요인은 물론,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Buttner & Moore(1997)는 여성들이 퇴사 후에 창업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창업동기로 도전정신과 자기만족감, 일과 가족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창업을 통해 여성기업가들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성기업가들은 사회적 명예나 경제적 부의 추구를 위해 창업을 하는 반면, 여성기업가들은 자아실현이 창업의 주된 동기라고 밝히고 있다(중소기업연구원, 2007). 반면에 여성창업가도 남성창업가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겪는 환경에서 발견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에 따라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위험을 감수하며(오지선·김영환, 2016), 남성과 똑같은 동기를 공유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창업동기에 성별차이는 없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된다(Mayoux, 2001; Kerka, 1993).

한편, 독립성, 자아실현(Buttner & Moore, 1997)이나 도전정신, 기업가적 충동(Rietz & Henrekson, 2000) 등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여성 역시 반드시 부정적인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하기보다, 스스로 기업을 이끌고 책임감을 느끼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거나, 고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혹은 권력의 추구 등의 욕구 등으로 창업을 결심하며, 자아의 실현이나 리더십, 기업가적 충동과 같은 끌어당기는 요인에 의해서도 창업을 시도한다(임이숙, 2020). 이는 앞서 창업 동기에 대한 이분법적 프레임워크를 적용시에 점차 성별로 차이가 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이든 여성이든 끌어당기는 요인이 공통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창업가에게는 공통적으로 끌어당기는 요인과 밀어내는 요인이 모두 작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따라서 여성의 창업 동기를 더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남녀를 단순히 비교하는 연구방식 보다는 여성의 선택에 미치는 사회 구조적인 조건을 함께 고려하고 여성만의 창업 동기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Buttner & Moore, 1997; 임이숙, 2020)

2.4 창업활동과 제약조건

여성이 창업 준비 중에 겪는 가장 큰 제약 조건으로 업종별로 볼 때 제조업, 건설업, 음식박업에서 자금조달이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업에서는 입지선정 및 확보가 높게 나타나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자금조달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중소기업

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7). 오지선·김영환(2016)은 여성창업인의 가정과 일 병행전략에 관한 연구를 사례 조사하여 여성창업인의 부드러운 리더십, 여성으로서의 삶과 경험에 바탕을 둔 사업 아이템 등을 활용하므로 여성창업인의 특성과 생존전략이 남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확인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창업인들의 경우 일과 가정양립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성고용 창출 및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었으며,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확인하였다(임이숙, 2020). 이 연구는 여성창업인을 사례조사 함으로써 남성기업인과 달리 여성기업인에게 나타나는 특성들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주목했다는 점에서 여성기업과 여성창업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도가 높으며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띄고 있다.

기업 내부 환경과 사회적 환경은 기업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또한 여성기업가들은 창업과정과 자원조달, 기업경영 및 운영관리, 전략수립 등 기업가적 프로세스 전반에 있어서 일반적인 기업가들과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김영환·양태용, 2013). 이를 두고 여성기업가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여성기업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및 창업생태계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기되었다(오지선·김영환, 2016). 같은 맥락으로 남녀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차이가 아닌 사회·문화적 맥락으로서 발현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Ahl, 2006).

우리나라의 여성창업에 대한 연구(정유정, 1997; 김영옥, 1998; 문숙재·최자경, 2001)에서는 주된 애로요인으로서 직장생활에서의 한계, 구직난, 직장과 육아·가사의 병행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특성은 우리나라 여성창업이 내재적(pull) 요인보다는 외재적(push) 요인 즉, 소득이나 가족의 생계 등의 이유로 창업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양현봉 외, 2016).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여성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창업가의 창업태도, 창업동기, 창업 활동과 제약조건을 일련의 여성창업의 주요 특성 요인으로 제시하고, 남성창업과 비교 분석한 연구는 매우 희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연구의 진행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나타낸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창업가의 창업활동을 함에 있어 주요하게 작용하는 여성창업가의 특성 요인에 대해 탐색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수집방법은 면접(interview)방법으로서, 연구자와 개별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창업가들의 경험과 인식, 태도 등을 수집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참여자의 경험과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서(Wolcott, 1992), 현상을 조작적으로 분리하여 변수화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다루는 연

구방법이다.

연구자는 여성기업가와 여성창업가를 개별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 인터뷰의 참가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인터뷰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왜곡을 방지하고자 인터뷰의 진행과 동시에 녹취를 진행됨을 안내하였다. 인터뷰 참여 중에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안내하고, 더불어 모든 인터뷰와 관련한 사항은 철저한 보안과 비밀이 보장됨을 안내하였다. 모든 인터뷰 및 녹취는 참가자들의 동의하에 시행되었고,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인터뷰 후 24시간 이내에 전사 작업을 개별적으로 모두 완료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최소 45분에서 최대 2시간 정도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의 질문 구성과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뷰 질문 구성 및 내용

구성	질문 문항
개인 특성	- 인터뷰 참여자의 이름 및 연령
기업 특성	- 업종, 창업 연도
창업태도	- 독립육구에 대한 질문 - 개발육구에 대한 질문 - 호의적 여건에 대한 질문
창업진입률	- 개인적 특성 관점 - 사회/여성학 관점
창업동기	- Pull factor - Push factor
창업활동과 제약조건	- 자원에의 접근 - 네트워크
여성창업가 주요 창업 업종	- 여성창업가의 주요 창업 업종 유무에 대한 의견
여성 기업가정신	- 여성 기업가정신에 대한 유무 의견 및 주요 변인
여성 기업 창업활동의 장애요인	- 네트워크 요인 - 가사 및 자녀보육 추가 부담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 여성기업 부정적 인식 - 성별 차별

3.2 표본선정

본 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되는 여성창업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제조업, 서비스업과 같은 다양한 기업들을 포함하였다. 이는 업종에 따른 여성창업가의 특성에 대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상의 설계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기업가를 포함한 사항 역시 여성창업가와 여성기업가의 특성에 대한 차이점을 확인코자 하였으며, 각각의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3 참여자 특성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먼저 본 연구는 30대 여성창업가 1명(12.5%), 서울 소재 기업의 여성 CEO 1명(12.5%), 40대 여성창업가 4명(50%), 50대 여성 CEO 1명(12.5%), 50대 여성창업가 3명(37.5%) 등 총 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 기업의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2곳(25%), 식품제조업 1곳(12.5%), 정보통신업 1곳(12.5), 서비스/사업 경영 및 관리자문 1곳(12.5%), 신재생에너지 기업 1곳(12.5%), 속옷 제조 및 유통 1곳(12.5%), 서비스(영상제작업) 및 서비스(교육, 컨설팅, 민간 자격증) 기업 1곳(12.5%)로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창업 연혁은 만 1년에서 만 25년까지의 다양하였으며, 사례기업 A의 응답자는 해당기업에서 35년 재직하였다.

<표 2> 인터뷰 참가자 특성

사례	사례기업	업종	기업 목적	창업 연혁	직위	연령	결혼 유무	자녀 유무
A	교육기업	교육 서비스업	- 더 크게 사람을 키우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상에서 제일 큰 학교	35년 (재직)	대표 이사	50대	유	유
B	교육기업	교육 서비스업	- 미용창업인 육성	25년	대표	50대	유	무
C	제조기업	식품 제조업	- 건강한 식생활문화 추구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조합원의 영리추구	10년	이사장	40대	유	유
D	벤처기업	정보 통신업	- 일의 선순환구조 창출	1년	VEO. Founder	40대	무	무
E	컨설팅기업	서비스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 경영자문 및 영리목적	14년	대표	40대	유	유
F	벤처기업	신재생 에너지	-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	3년	대표	50대	유	유
G	제조기업	속옷 제조 및 유통	- 즐거운 이너웨어 라이프 문화 추구	2년	대표	30대	무	무
H	1인기업, 영상제작 기업	서비스 (영상제작업),(교육, 컨설팅, 민간 자격증)	- 평생교육시설	6년	대표	40대	유	유

3.4 분석 방법

제3자가 녹취한 기록을 문서화하는 과정을 거쳐, 전공 교수 1명과 연구자 1명이 함께 연구자가 심층 인터뷰 자료들을 교차 검증하여 각 단락별로 핵심문장과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수집된 인터뷰 자료들을 2명이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 연구참여자별로 인터뷰의 문항별 핵심 주제어와 주요 문장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추출된 핵심 주제어와 주요 문장을 중심으로 이를 다시 유목화하는 작업과정을 거쳤으며, 정확성을 높이고자 유목화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이나 텍스트를 발견 시 원자료인 녹취를 다시 확인하고 핵심 주제어와 주요 문장을 중심으로 연구에 반영할 텍스트를 항목별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집한 모든 인터뷰 자료들은 Textom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주로 질적 연구 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인 Textom 프로그램은 방대한 자료를 대상으로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할 시 자료에 대한 코딩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코딩된 자료를 대상으로 분류하는 작업과 재분류를 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용이한 방법으로, 효율적인 자료 분석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3.5 연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실적 가치, 일관성, 중립성,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Guba & Lincoln, 1981). 먼저 연구자는 사실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에 앞서 일관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중에는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핵심주제와 범주를 도출하고자 비교 분석(Consistency Comparative Analysis) 과정에 전공 교수 1명과 연구자 1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개별 현장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각각 시작부터 종결까지 녹취를 진행하여 내용을 있는 그대로 녹음 파일로 담아 중립성 요건을 준수하고, 실제 상황이 왜곡되거나 섞이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목적에 맞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각 사례를 면밀히 교차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사례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창업태도(독립요구, 개발욕구, 호의적여건), 창업진입률, 창업동기, 창업활동과 제약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4.1 창업태도(독립요구, 개발욕구, 호의적 여건)

여성창업가들은 자기만족을 느끼는 것에 기업 운영을 통한 이윤을 창출하고 비즈니스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성공의 가치를 더 크게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창업가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경제적 및 직무 상황보다는 독립과 자아실현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임·김선우, 2021). 마찬가지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창업태도에서도 독립요구, 개발욕구, 호의적 여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창업가는 남성 창업가 보다 몇 배 더 센 것 같아요. 육아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이걸 메꾸고 자기 일을 해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하지만 직장인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우선 순위가 가정이 돼버리고요.” (사례기업A).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안다는 거죠. 특히 식품 쪽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으며, 이제 좀 자신 있다는 거는 있죠.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이게 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사례기업C).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지시, 간섭, 명령을 받기 싫었다.” (사례기업E).

“직장인 시절,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해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퇴근 후, 주말)과 사비를 들였다. 그렇게 하는 일마다 성과가 났고 동료들에 비해 많은 일들을 수행했다. 동료와 비교하여 2.5배 이상의 일을 하는데,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동료의 2.5배의 급여가 아니므로 나의 역량과 나의 열정에 맞는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할 것이고, 건강한 체력이 있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할 것이므로 창업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례기업E).

여성창업가는 기술적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며 수익이 창출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력을 좀 더 쌓아서 했으면 그런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어 쉽게 보고 그런데 이게 모든 기술이라는 게 이것도 어쨌든 기술이잖아요. 그 얘기 같으면 이것도 기술 창업이 될 수 있는 건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고 그냥 ‘학원에서 더 배워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위험적이라고 보고 있죠.” (사례기업B).

“생각하는 모든 아이디어가 일로 구현될 수 있고 수익창출이 된다는 것이 보람 있습니다. 개인과 지역과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례기업H).

여성창업가는 창업에 대한 주변의 호의적 여건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가, 외가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고 ‘자수성가’ 스타일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하는데 있어 지원과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고, 내가 창업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없었다.” (사례기업E).

“일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힘들게 시작하였지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지금은 감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다보니 든든한 지원도 있습니다.” (사례기업H).

4.2 창업진입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창업기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구조가 변화되면서 여성기업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되어 국민 경제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더불어 상승하고 있다(남기정 외, 2019). 여성창업가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창업업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구조요인이 여성창업가에게 창업진입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주변에 여자라고 창업을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다만, 간혹 주변에서 비교적 잘 된 여성 창업자가 ‘남자였으면 창업할 때, 집에서 더 많이 받아서 더 크게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남자가 아니라서 창업투자비를 집에서 지원받기 위해 설득하는데 힘들었다.’ 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결국 어떻게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받아서 창업을 하였다.” (사례기업E).

“개인적으로는 사회구조적 원인이라고 생각함. 전공과는 상관없이 여성은 누구나가 창업을 할 수 있으며 기회가 있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도전을 해야 하는데 정보나 교육 기타 다양한 통로 인식이 부재함.” (사례기업F).

“사회 구조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자들이 남성이 더 많고 지원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 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례기업G).

“자기효능감의 부족, 개인 선호의 차이, 창업기회인식의 차이, 위험회피 성향, 성 고정관념이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 많은 여성 창업가와 지도자가 꾸준히 동기부여 해 주고 이끌어주면 좋겠습니다.” (사례기업H).

4.3 창업동기

Buttner & Moore(1997)는 창업을 선택하는 여성들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창업동기는 도전정신과 자기만족감, 균형적인 일과 가정을 맞추고자 하는 욕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기업가들에게 확인되는 창업동기는 창업을 통한 독립성과 자율성의 획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임·김선우, 2021). 마찬가지로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위의 요인들이 창업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의 창업동기는 Pull Factor(자아실현, 리더십, 기업가적 충동, 권력욕구)이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 밑에서 더 적은 보수를 받고 일하기 싫었다.” (사례기업E).

“개인적으로는 Pull Factor가 영향을 미쳤으면 특히 자아실현동기가 많고 기업가적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동기가 명확했다.” (사례기업F).

4.4 창업활동과 제약 조건

과거 여성창업 연구들은 사회에서 형성된 젠더(gender)의 관점에서 창업을 바라보기보다 생물학적 성(sex)을 기준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밝히는데 집중해왔다(Ahl, 2006). 남성중심의 유교문화와 같은 사회에서는 창업활동에 대해 남성적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여성창업가는 남성창업가보다 여러 측면을 비교해볼 때 열등하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았다(박태영, 2017).

여성창업가들은 자원접근 측면에서는 남성창업가와 여성창업가 간에 인식차이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남녀 창업가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이 일을 하면 일을 해보야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런 시각은 없어졌죠 오히려 일하는 여성이 멋있어 보이는 위치까지 올라왔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서는 사회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사례기업A).

“창업할 때 신용보증기금, 은행을 통해 1%, 5천만원을 빌렸는데, 모든 과정이 원하는 대로 원만히 진행되었다. 창업 당시, 만으로 20대였는데, 여자고 비교적 나이 어리다고 불리한 것은 없었다.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느낌은 받았다.” (사례기업E).

“공식적 투자자(벤처캐피탈, 엔젤 투자자)가 여성보다 남성 기업인 선호한다.” (사례기업G).

“내가 실력이 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으므로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여성이어서 크게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오히려 오래 있기 싫은 자리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먼저 나갈 수 있었던 경우는 있었다.” (사례기업E)

“여성창업활동시 인적자본이나 다양한 사회적 연결자본이 중요함, 이를 통해 비즈니스 체결 및 협상타결과 자금조달 등이 가능하나 여성은 사회적 인적자본 형성이 부족함. 즉 여성기업의 경우 네트워크 확대나 경영상의 자금조달의 한계로 인해 자금조달을 어려워함.” (사례기업F).

“여성기업의 경우 여성 차별적 관행과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네트워크 확대 어려움이 있고, 네트워크는 같은 여성의 비중이 높는데 여성 조언자의 부족 또는 꺼림이 있다. 여성기업이 거래 관계를 맺을 때도 차별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 (사례기업G).

“여성기업인의 위험회피 성향이 외부금융에의 접근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며 여성소기업의 부족도 창업활동에 있어서 제약조건이라고 봅니다.” (사례기업H).

4.5 여성창업가 주요 창업업종

European Parliament(2015)에 따르면 여성창업가들은 남성창업가들에 비해 소규모 기업인 경우가 많았으며, 업종에 있어서도 남성창업가와 비교해 볼 때 사업의 이익률이 낮거나, 성장과 매출액이 낮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적으로 여성창업가들은 창업 시작을 자본금 규모 내에서 하고,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용자 및 채권, 주식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높다는 점과 출산 및 육아 등 경력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점은 여성창업가가 남성창업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재무적으로 자본 축적이 어렵다는 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지선·김영환, 2016).

“여성창업가가 주로 창업하는 업종은 미용, 커피, 디저트, 의류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도 창업을 할 수 있고, 쉽고 깔끔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사례기업E).

“산업별 여성 창업가들이라고 소매업과 개인 서비스업에 치중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고성장 가능한 산업의 진출 가능성은 여성 창업에서 가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사례기업F).

“커머스, 뷰티, 소매업, 음식점, 카페 등이 주요 창업 업종이고 고성장 가능한 산업에 여성이 진출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사례기업G).

4.6 여성 창업가의 기업활동의 장애요인

창업가라면 누구나 성별을 떠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터 창업한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순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할 때 진정한 기업가정신이 발휘된다(오지선·김영환, 2016). 마찬가지로 본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창업활동 장애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일 중요한 건 은행권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또 은행권의 인맥이 남성 위주의 인맥이지 여성 인맥이 들어가는 건 어려운 인맥이예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는 다 정당하게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정말 확인이랑 확인 이런 은행권에...은행권도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은행도 결국은 신뢰니까 그 여성 CEO들한테 과연 남성 CEO와 여성 CEO의 신뢰를 은행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런

차원이죠.” (사례기업A).

“여성분들을 중간관리자로 키워놓으면 애 키우고 다 나가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가 없어서 제일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관리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뭐든지 제가 신경 써야 되는 것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죠.” (사례기업C).

“여성 창업가이기 때문에 넘어야 하는 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창업한 2000년대 초반에는 ‘젊은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는 편견 어린 시선이 있었죠 여성 창업가에 대한 조건 없는 불신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금조달과 영업력에 있어 여성이 불리했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권 대출이 불가능해 자기자본금을 탈탈 털어 사업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또한, 기업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인정도 받지 못해 힘들었죠.” (사례기업F).

“가사 및 자녀교육 부담과 성별 차별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사례기업G).

“예전보다는 문제나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남성 네트워크 중심의 산업에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제작업도 대부분 남성 위주 (80% 내외) 활동인 것 같습니다. 사업자는 제가 대표였지만 전문 영상기술도 없고 초기에는 대화도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3-4년차부터는 1인 미디어로 차별화 하여 꾸준히 활동을 시작했고, 남성중심 산업에서도 융합과 협업을 통해 기회를 발굴하고 차별화 시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기업H).

<표 3> 인터뷰 분석 결과

상위요인	질문 문항	대표 예 인용문
창업태도	1. 독립육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 일의 수행시 보다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창업? - 내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해? - 내 시간의 융통성과 통제권을 얻기 위해?	1. 창업가는 허허 뵈판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그거를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여성 창업가 정신은 남자들의 창업가 정신보다 몇 배 더 센 것 같아요. 20대 30대 창업을 하고 제가 이제 창업한 여성들 CEO 성공한 CEO들을 보면 이제 30대 중반 40대 정도 됐을 때는 골드미스나 골드미스가 되지 그리고 이런 육아나 이런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이걸 메꾸고 자기 일을 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거 직장인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가정이 돼버리고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사례기업A) 2.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안다는 거 식품 쪽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자신 있다는 거는 있죠.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이게 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사례기업C) 3. 효율적이고 자기가 필요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저도 그전에는 제가 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근데 주가 아니어도 그때도 아마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남편이 직장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나는 부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주업이다.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비율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사례기업C) 4.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지시, 간섭, 명령을 받지 싫었다(사례기업D) 5. 직장인 시절, 보다 좋은 결과를 위해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퇴근 후, 주말)과 사비를 들였다. 그렇게 하는 일마다 성과가 났고, 동료들에 비해 많은 일들을 수행했다. 동료와 비교하여 2.5배 이상의 일을 하는데,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동료의 2.5배의 급여가 아니므로 나의 역량과 나의 열정에 맞는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할 것이고, 건강한 체력이 있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할 것이므로 창업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사례기업E) 6. 실제 업무의 역량 뿐 아니라 업무 이외의 이미지 메이킹, 인간관계 등을 관리해야 하는 직장생활이 매우 피곤하였다(사례기업E)

	<p>2. 개발육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 기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 내가 속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p> <p>3. 호의적 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 주위 여성 창업에 성공사례에 힘입어? - 과거에 비해 좋아진 여건으로? - 가족들의 지원에 힘입어? - 직장이나 사회의 역할(RE)?</p>	<p>7. 창업 동기는 내가 원하는 일을 시간에 관계없이 하기 위해서 창업을 시작하였다는 점입니다. (사례기업G) 8. 2009년 기존 직업을 바탕으로 가족 공동 창업(영상제작업)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폐업 후 2015년 재창업(1인미디어 제작 및 교육) 하였습니다.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기여를 바탕으로 자아실현에도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회 구성원 중 독립된 주체라는 생각에 만족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사례기업H)</p> <p>1. 실력을 좀 더 쌓아서 했으면 그런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어 쉽게 보고 그런데 이게 모든 기술이라는 게 이것도 어쨌든 기술이잖아요. 그 얘기 같으면 이것도 기술창업이 될 수 있는 건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고 그냥 학원에서 더 배워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위험적이라고 보고 있죠(사례기업B) 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고 싶었고, 하기 싫은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기 싫었다.(사례기업E) 3. 생각하는 모든 아이디어가 일로 구현될 수 있고 수익창출이 된다는 것이 보람 있습니다. 개인과 지역과 사회에 도움되기 위해 노력합니다.(사례기업H)</p> <p>1. 친가, 외가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고, '자수성가' 스타일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하는데 있어 지원과자지를 받은 것은 아니고, 내가 창업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없었다.(사례기업E) 2. 일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힘들게 시작하였지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지금은 감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다보니 든든한 지원도 있습니다.(사례기업H)</p>
<p>창업진입률</p>	<p>1. 여성의 창업진입률이 낮은 이유는? - 개인적 특성 관점: 자기효능감의 부족, 개인 선호의 차이, 창업기회인식의 차이, 위험회피 성향, 성고정관념 - 사회/여성학 관점: 사회구조적인 원인(창업교육 기회, 창업경험, 공학계열 전공이 적음)</p>	<p>1. 나는 주변에 여자라고 창업을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다만, 간혹 주변에서 비교적 잘 된 여성 창업자가 "남자였으면 창업할 때, 집에서 더 많이 받아서 더 크게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남자가 아니라서 창업투자비를 집에서 지원받기 위해 설득하는데 힘들었다." 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결국 어떤 게든 자원이 필요한 사람은 받아서 창업을 하였다.(사례기업E) 2. 개인적으로는 사회구조적 원인이라고 생각함, 전공과는 상관없이 여성은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으며 기회가 있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도전을 해야 하는데 정보나 교육 기타 다양한 통로 인식이 부재함(사례기업F) 3. 사회 구조적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자들이 남성이 더 많고 지원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차별 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사례기업G) 4. 자기효능감의 부족, 개인 선호의 차이, 창업기회인식의 차이, 위험회피 성향, 성고정관념이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 많은 여성 창업자와 지도자가 꾸준히 동기부여 해주고 이끌어주면 좋겠습니다(사례기업H)</p>
<p>창업동기</p>	<p>1. 여성의 창업동기인 Pull Factor 와 Push Factor 중 본인의 경우 어느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가? - Pull Factor(자아실현, 리더십, 기업가적 충동, 권력욕구) - Push Factor(유리천장(승진 어려움: 보이지 않는 장벽, 직장가정의 양립)</p>	<p>1. 나의 창업동기는 Pull Factor이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 밑에서 더 적은 보수를 받고 일하기 싫었다.(사례기업E) 2. 개인적으로는 Pull Factor가 영향을 미쳤으면 특히 자아실현동기가 많고 기업가적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동기가 명확했음(사례기업F) 3. Pull Factor가 영향을 미쳤습니다.(사례기업G) 4. Pull Factor(자아실현, 리더십, 기업가적 충동, 권력욕구) (사례기업H)</p>
<p>창업활동과 제약조건</p>	<p>1. 여성 창업활동의 주요 제약조건은? 1. 자원への 접근 - 자원 획득의 어려움이 있었나- - 여성 기업인은 남성 기업인에 비해 외부 금융への 접근 제한이 있는지도 - 공식적 투자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가 여성보다 남성 기업인을 선호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세요 - 여성기업인의 위험기회 성향이 외부금융への 접근에 제약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도</p> <p>2. 네트워크 - 여성 기업의 경우 여성 차별적 관행과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네트워크 확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지도 - 초기 자본 비용의 경우 내부자본(개인신용, 개인저축, 가족의 자금 등)에 의존 - 여성 기업인의 네트워크는 같은 여성의 비중이 높는데 여성 조언자의 부족 또는 꺼림 - 여성 기업이 거래 관계를 맺을 때 차별에 직면할 확률이 높음</p>	<p>1. 지원への 접근 1) 여성이 일을 하면 일을 해야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런 시각은 없어졌죠. 오히려 일하는 여성이 멋있어 보이는 위치까지 올라왔고...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일을 하면은 저희 회사에 국한해서 그 눈높이 선생님 하는 분들을 보면 남편들이 고시 공부를 한단지 뒷바라지 하는 그런 쪽의 여성이 회사으로 직장을 가졌는데 오 사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요사이는 정말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장을 갖지 내조를 위한 회사 이런 기업적인 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사회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사례기업A) 2) 창업할 때 신용보증기금, 은행을 통해 1%, 5천만원을 빌렸는데, 모든 과정이 원하는대로 원만히 진행되었다. 창업 당시, 만으로 20대였는데, 여자와 비교적 나이 어리다고 불리한 것은 없었다.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사례기업E) 3) 공식적 투자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가 여성보다 남성 기업인 선호한다(사례기업G)</p> <p>2. 네트워크 1)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도 애가 묵직하고 과묵하구나 그러니까 왜 남자들 사이에 가서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도 밖으로 많이 안 내고 그리고 가도 제가 여자로 안 느껴지는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직원 중에 하나 그리고 재는 술은 못 먹어도 뭐 크게 분위기를 해치지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투명 인간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를 아주 배제를 하거나 뭐 가서도 막 자기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제가 분위기 파악을 좀 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그분들의 실수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뒷담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른 분 다른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한테는 아 이 친구라면 여자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말 잘 듣는 직원 또는 이 친구라면 그냥 믿어도 된다. 그래서 임원이 돼서도 굉장히 크게 강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 속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저에 대한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린 게 있다 보니까 또 선배들이 잘 이끌어주셨고 또 새로운 임원들이 와도 거기에 잘 어우러지게 되었습니다.(사례기업A) 2) 내가 실력이 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으므로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여성이어서 크게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오히려 오래 있기 싫은 자리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먼저 나갈 수 있었던 경우는 있었다.(사례기업E) 3) 여성창업활동시 인적자본이나 다양한 사회적 연결자본이 중요함, 이를 통해 비즈니스 체결 및 협상타결과 자금조달등이 가능하나 여성은 사회적 인적자본 형성이 부족함. 즉 여성기업의 경우 네트워크 확대나 경영상의 자금조달의 한계로 인해 자금조달을 어려워함.(사례기업F)</p>

		<p>4) 여성 기업의 경우 여성 차별적 관행과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네트워크 확대 어려움이 있고, 네트워크는 같은 여성의 비중이 높는데 여성 조인자의 부족 또는 꺼림이 있다. 여성 기업이 거래 관계를 맺을 때도 차별에 직면할 확률이 높다(사례기업G)</p> <p>5) 여성기업인의 위험기피 성향이 외부금융에의 접근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며 여성조인자의 부족도 창업활동에 있어서 제약조건이라고 봅니다(사례기업H)</p>
<p>여성창업가 주요 창업 업종</p>	<p>1. 여성창업가의 경우 주요 창업 업종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산업별 분포에 대해 여성기업은 소매업과 개인 서비스업 치중에 대한 의견은? 2. 여성창업가의 고성장가능한 산업으로의 진출 가능성은?</p>	<p>1. 여성창업가가 주로 창업하는 업종은 마용, 커피, 디저트, 의류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도 창업을 할 수 있고, 쉽고, 깔끔하다고 여기는 듯하다.(사례기업E)</p> <p>2. 산업별 여성 창업가들이라고 소매업과 개인 서비스업에 치중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고성장 가능한 산업의 진출 가능성은 여성 창업에서 가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사례기업F)</p> <p>3. 커머스, 뷰티, 소매업, 음식점, 카페등이 주요 창업 업종이고, 고성장가능한 산업에 여성이 진출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사례기업G)</p> <p>4. 온라인 관련산업에 진출가능하다고 본다(사례기업H)</p>
<p>여성 기업가정신</p>	<p>1. 여성 기업가정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기업가정신 고려 변인: 경영능력, 독립성, 성장지향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창의성, 혁신성에 추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고민</p>	<p>1. 특별히 여성 기업가정신이 별개로 있는 것 같진 않다.(사례기업E)</p> <p>2. 여성 창업가로서 기업가정신은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경영자로서 창의성, 진취성, 혁신성을 근간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일과 가정을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협력적 체계를 구축해야 함. 가족 구성원들과 이해를 구하고 회사업무에 몰입을 위한 이유와 해당하는 업무가 소홀해지는 것을 대비하여 구성원들의 역할 분배가 필요함. 또한, 가족들과 협력 관계는 상호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사례기업F)</p> <p>3. 여성, 남성 구분한 기업가정신 보다는 개인 특성을 고려한 기업가정신이 필요해 보이고 위 변인은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사례기업H)</p>
<p>여성 기업 창업활동의 장애요인</p>	<p>1. 여성기업 창업활동의 장애요인을 아래 내용을 참조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세요. - 네트워크 요인 - 가사 및 자녀보육 추가 부담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 여성기업 부정적 인식 - 성별 차별</p>	<p>1. 제일 중요한 건 은행권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또 은행권의 인맥이 남성 위주의 인맥이지 여성 인맥이 들어가기 어려운 인맥이예요.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는 다 정당하게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정말 확인이랑 확인 이런 은행권에...은행권도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은행도 결국은 신뢰니까 그 여성 CEO들한테 과연 남성 CEO와 여성 CEO의 신뢰를 은행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나 그런 차원이죠(사례기업A)</p> <p>2. 이제 그렇게 중간 관리자를 누구를 키우기에는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 남성을 어떻게 남자 직원을 키울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키워놓으면 또 애 키우고 다 나가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간 관리자가 없어서 제일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관리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뭐든지 제가 신경 써야 되는 것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었죠(사례기업C)</p> <p>3. 나는 여성 기업 창업활동의 장애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창업의 장애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요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창업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결혼하라고 하였고, 하고 싶으면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대출을 알아보았고, 대출로 창업하였다. 부모님의 나의 창업을 지원해주지 않은 이유가 내가 여자가기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IMF를 경험했던 우리 부모님은 창업을 한 자영업자의 삶이 고단하다고 생각했고, 창업을 하면 열심히 일한만큼 벌기도 하지만, 또 열심히 해도 못 벌수도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내가 아들이었어도 그랬을지, 왜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하라고 하셨는지는 의문이고, 어쩌면 약간의 내가 여자여서 창업에 대해 부정적이었을 수 있었겠다고 생각한다(사례기업E)</p> <p>4. 여성 창업가이기 때문에 넘어야 하는 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창업한 2000년대 초반에는 "젊은 여자가 무슨 사업이나"는 편견 어린 시선이 있었죠. 여성 창업가에 대한 조건 없는 불신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금조달과 영업력에 있어 여성이 불리했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권 대출이 불가능해 자기자본금을 탈탈 털어 사업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또한, 기업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인정도 받지 못해 힘들었죠(사례기업F)</p> <p>5. 가사 및 자녀교육 부담과 성별 차별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사례기업G)</p> <p>6. 예전보다는 문제가 큰 어려움이 없어보이지만, 남성 네트워크 중심의 산업에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제작업도 대부분 남성 위주 (80% 내외) 활동인 것 같습니다. 사업자는 제가 대표였지만 전문 영상기술도 없고 초기에는 대화가 안되는 상황이었지만 3-4년차부터는 1인미디어로 차별화 하여 꾸준한 활동을 시작했고 학교 진학으로 창업공부를 병행한 것이 지금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중심 산업에서도 융합과 협업을 통해 기회를 발굴하고 차별화 시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사례기업H)</p>

4.7 인터뷰 내용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인터뷰 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은 Texto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Textom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처리리를 하였으며, 이는 단어의 정제 및 형태소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이일한, 2022). 다음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품사 형태, 띄어쓰기, 약어, 복수 등의 단어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동의어, 광의어, 협의어를 최소한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였다(이일한, 2022). 전처리로 정리된 단어는 총 105개이며, 105개의 단어들은 분석 중 최소 빈도수 2회 이상 등장하여 별도의 차감 없이 진행하였다.

이어 해당 105개 단어를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

법을 하였다. 키워드와 같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가정은 텍스트에 내재한 언어와 지식은 단어와 그들 간의 관계 네트워크로 모델링 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내 키워드 위치와 연결패턴을 통해 의미 또는 중요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이일한, 2022). 통상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석방법에는 주제어-주제어 행렬에 대한 중심성 분석이 수행된다. 중심성은 주제어의 중심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3가지의 중심성인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중심성의 경우 사회 네트워크 분석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수상, 2012)로써, 네트워크의 개별 키워드가 전체 및 시기별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수

상, 2012).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에서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을 살펴보았다(이일한, 2022).

여성창업활동 관련 인터뷰 자료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어를 살펴보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심성 분석은 여성창업활동 전체 주제어 중 어떠한 주제어가 중심에 위치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여성창업활동에 있어 다른 주제어들과 가장 많이 언급되어진 연결중심성이 큰 주제어, 다른 주제어로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접중심성이 큰 주제어, 여성창업활동의 세부 주제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크며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의 판별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창업활동의 중심적인 주제어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105개의 주제어 중 최소 빈도수 2회 이상 등장하는 105개 주제어에 대한 중심성 분석을 진행하였고, 분석결과에서 중심성이 높은 순서로 40위까지의 주제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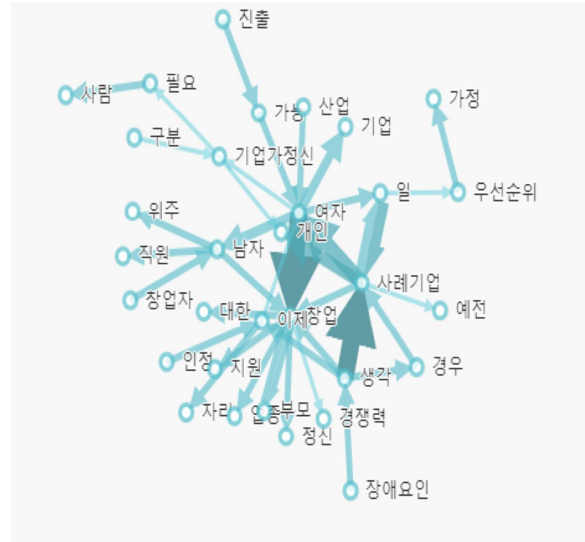
중심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여자(16.191)”, “창업(11.407)”, “생각(7.656)”, “일(7.268)”, “남자(5.675)”, “네트워크(3.569)”, “차별(2.7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결중심성이 큰 주제어는 다른 주제어들과 함께 언급되는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여성창업활동과 밀접한 주제어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접성이 높은 주제어는 “창업(0.655)”, “여자(0.643)”, “남자(0.631)”, “일(0.613)”, “남편(0.609)”, “생각(0.602)”, “필요(0.60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접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키워드와 최소 단계로 연결되므로써 전체 여성창업활동에 빠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매개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창업(0.019)”, “여자(0.017)”, “생각(0.014)”, “남자(0.013)”, “일(0.012)”, “필요(0.011)”, “도움(0.010)”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개중심성이 큰 키워드는 네트워크 내에서 주제어 사이를 연결하는 위치에 놓여 있어서 서로 다른 주제어 또는 주제 간의 연결 관계를 가능케 한다.

이 중 “창업”과 “여성”은 여성 창업활동 관련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뿐만 아니라 매개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창업” 역시 “생각”, “일”, “남자” 등 여성창업활동 관련에서 키워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심성 분석에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여자”의 단어가 주요한 단어로 나타나며 이외의 단어들은 구조상 크게 편중된 모습 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여성창업가의 경우는 “여자”, “일”, “우선순위”, “가정”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자”, “창업”, “생각”, “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여성 창업활동 관련 인터뷰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표 4> 여성 창업활동 관련 중심성 분석결과

단어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여자	16.191	0.643	0.017
사례기업	13.627	0.663	0.021
창업	11.407	0.655	0.019
이제	8.206	0.631	0.012
생각	7.656	0.602	0.014
일	7.268	0.613	0.012
남자	5.675	0.631	0.013
네트워크	3.569	0.546	0.005
은행	3.545	0.546	0.005
차별	2.780	0.560	0.006
사회	2.727	0.569	0.008
기업	2.593	0.546	0.005
직원	2.340	0.585	0.008
지원	2.211	0.563	0.007
남편	2.096	0.609	0.009
가족	2.077	0.526	0.005
인맥	2.048	0.480	0.002
어려움	1.895	0.585	0.008
부족	1.813	0.514	0.004
필요	1.809	0.602	0.011
사업	1.799	0.526	0.004
부모	1.799	0.526	0.004
시작	1.665	0.576	0.008
도움	1.603	0.613	0.010
얘기	1.598	0.557	0.006
지금	1.579	0.609	0.009
지금조달	1.579	0.546	0.005
자리	1.565	0.483	0.002
대출	1.550	0.480	0.002
장애요인	1.550	0.480	0.002
결혼	1.550	0.480	0.002
인정	1.545	0.585	0.008

기능	1.536	0.557	0.009
직장	1.502	0.551	0.006
독립	1.464	0.487	0.002
중요	1.450	0.599	0.01
산업	1.416	0.489	0.004
역량	1.416	0.549	0.005
우선순위	1.378	0.521	0.004
관계	1.373	0.595	0.009

V. 결론

여성창업가들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기업활동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성창업가들을 둘러싸고 있는 창업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기존의 연구가 많은 여성들이 창업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겪는 경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여성창업활성화를 여성창업가의 특성과 역량에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탐색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8명의 여성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창업태도(독립욕구, 개발욕구, 호의적여건), 창업진입률, 창업동기, 창업활동과 제약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첫째, 여성창업가들의 창업태도는 자기만족을 느끼는 데서 성공의 경영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며, 독립과 자아실현이 우선시 하는 특성이 있으며, 창업에 대한 주변의 호의적 여건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 창업진입률에서 남성과의 개인적 차이, 사회적 구조요인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창업동기는 도전정신과 자기만족감, 일과 가족의 균형을 맞추려는 욕구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성창업가들은 자원접근 측면에서는 남성창업가와 여성창업가 간에 인식차이가 거의 없으나 네트워크에서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여성창업가의 주요 업종은 소규모 기업이고 이익률이 낮은 업종, 성장과 매출액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창업활동의 장애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뷰 자료 중심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여자”, “창업”, “생각”, “일”, “남자”, “네트워크”, “차별”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근접성이 높은 주제어는 “창업”, “여자”, “남자”, “일”, “남편”, “생각”, “필요”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개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창업”, “여자”, “생각”, “남자”, “일”, “필요”, “도움”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창업가의 경우는 “여자”, “일”, “우선순위”, “가정”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자”, “창업”, “생각”, “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여성기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여성 창업가들의 심리적 특징과 인적자원, 사회적자원 등의 분석을 통해 경영 성과에 실증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겪는 경험이나 사회적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둘째 기존 국내의 여성창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어려움의 여러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육아, 직장과 가사의 병행, 구직에 대한 한계, 남성에 비해 상대적인 직장생활의 한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여성창업가의 경우 여성만의 창업 장애요인은 높지 않으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여성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의 창업은 남성기업의 창업보다 기업규모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arter & Rosa, 1998; Verheul, Uhlander & Thurik, 2005; 남기정 외, 2019). 이는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른 결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성창업가가 주로 창업하는 업종은 미용, 커피, 디저트, 의류 시장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에 여성창업이 여성의 사회적 경험이나 직장생활에서의 관리능력에 의한 기회적 창업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창업도 활성화하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8인의 여성창업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인터뷰 자료 이외에 정량데이터 분석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REFERENCE

- 공혜원·김효선(2018).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의도의 관계: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및 성별 조절효과. *대한경영학회지*, 31(12), 2223-2244.
- 김영옥(1998). *여성의 창업과 기업 경영*. 한국여성개발원. 서울.
- 김영환·양태웅(2013). 기업가정신 전문 유명 국제학술지 논문을 통한 기업가정신 연구 동향 분석. *중소기업연구*, 35(3), 347-376.
- 남기정·이동명·진로(2019). 여성창업기업과 남성창업기업의 생존특성 비교연구. *여성연구*, 100, 125-160.
- 나중덕·김승호·최탁열(2004). 여성 창업기업의 환경 및 경영자 특성, 활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26(1), 175-201.
- 문숙재·최자경(2001). 여성창업기업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1), 61-78.
- 박종복·양현봉(2014). 여성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구: 지식과 기술기반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9(3), 1-29.
- 박태영(2017). 여성창업에 대한 한국대중매체(신문)의 담론: NVivo 활용, *창조와 혁신* 10(1), 127-167
- 안상철(2011). *창업 여성CEO의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 양인숙·장미혜·김난주·이윤화(2004).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서울.
- 양현봉·박종복·설병문(2016). 한국의 여성 지식기술창업의 특성에

- 관한 탐색연구. *한국혁신학회지*, 11(1), 113-141
- 오지선·김영환(2016). 한국 기혼여성 창업가의 경영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가정과 일 병행전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8(4), 27-52.
- 이상석(2006). 여성기업의 창업동기, 성공요인,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8(4), 45-64.
- 이수상(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이일한(2022). 사회적기업 연구 동향과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2008~2020년까지).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5(1), 237-263.
- 이호숙(2015). 여성의 창업을 통해 본 기업가정신과 젠더전략. *여성학연구*, 25(3), 99-140.
- 임이숙(2020). 중소기업연구 40년간의 여성기업/여성창업 관련 연구와 해외 연구 동향,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 *중소기업연구*, 42(3), 77-100.
- 정유정(1997). *여성의 창업성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 조대우(2004). 여성 벤처기업 CEO의 성공요인. *경영경제연구*, 26(2), 121-149.
- 중소기업연구원(2007). *여성기업경쟁력 실태조사*.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7). *2007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최탁열·이상석(2007). 여성기업의 경영자 특성과 기업성과간의 관계 연구(여성창업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2(3), 123-143.
- 한정화·백운정(2003). 여성벤처기업의 창업동기와 경영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25(3), 1-21.
- 홍정임·김선우(2021). 여성 창업가의 성공과 혁신활동에 대한 사례 연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1), 55-69.
- 황보윤·양영석·김명숙(2018). 창업기업 QFD 교육 훈련 학습자 특성이 학습 전의도에 미치는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3(4), 35-48.
- Ahl, H.(2006). Why research on women entrepreneurs needs new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5), 595-621.
- Ahn, S. C.(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Female Corporate Founders on Managerial Achievements*. Master Dissertation, Hanbat National University.
- Baron, R.A. & Henry, R.A.(2011). *Entrepreneurship: The genesis of organizations*. In: Zedeck S (ed) APA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1: Building and developing the organiz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on, R. A., & Ward, T. B. (2004). Expanding entrepreneurial cognition's toolbox: Potential contributions from the field of cognitive scie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6), 553-573.
- Boden, R. J., Jr., and A. R. Nucci, A. R.(2000). On the survival prospects of men's and women's new business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4), 347-362.
- Brush, C. G.(1992),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Past trends, a new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4), 45-30.
- Brush, C., De Bruin, A., & Welter, F.(2009). A gender aware framework for women's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Gender and Entrepreneurship*, 1(1), 8-24.
- Brush, C. G.(1997). Women-owned businesses: Obstacle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2(1), 1-24.
- Buttner, E. H., & Moore, D. P.(1997). Women's Organizational Exodus to Entrepreneurship: Self-reported Motivations and Correlates with Succ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5(1), 34-46.
- Cabrera, E. M., & Mauricio, D.(2017). Factors affecting the success of women's entrepreneurship: a review of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Gender and Entrepreneurship*, 9(1), 31-65.
- Carter, S. & Rosa, P.(1998). The financing of male- and female-owned businesse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0(3), 225-41.
- Cho, D. W.(2004). The Success Factors of the CEO of a Female Venture Company focusing on case studies. *Business Economy Research*, 26(2), 121-149.
- Choi, T. Y., & Lee, S. S.(2007). The study of relations between CEO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Woman's Enterpris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3), 123-143.
- De Bruin, A., Brush, C. G., & Welter, F.(2007). Advancing a framework for coherent research on women'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23-339.
- DeTienne, D.(2010). Entrepreneurial exit a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entrepreneurial process: theoretical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 203-215.
- Dolinsky, A. L.(1993). The Effects of Education on Business Ownership: A Longitudinal Study of Wome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43-53.
- European Parliament(2015). <https://www.europarl.europa.eu/portal/en>.
- Eckhardt, J. T., and Shane, S. A. (2003). Opportunities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Management*, 29(3), 333-349.
- Guba, E. G., & Lincoln, Y. S.(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 Gupta, V. K., Goktan, A. B., & Gunay, G. (2014). Gender differences in evaluation of new business opportunity: A stereotype threat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9(2), 273-288.
- Gupta, V.K., Turban, D., Wasti, S.A., & Sikdar, A.(2009), The role of gender stereotypes in perceptions of entrepreneurs and intentions to become an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2), 397-417.
- Han, J. H., & Baeg, Y. J.(2003). An Exploratory Study of Business Start-up Reasons of Women Entrepreneurs and Management Characteristic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5(3), 1-21.
- Hong, J. I., & Kim, S. W.(2021). Case Study on Success and Innovation Activities of Women Entrepreneurs: Focusing on Startup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1), 55-69.

- Hwang, B. Y., Yang, Y. S. & Kim, M. S.(2018). Moderating Effects of 3 years over Startup QFD Training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on Transfer Intens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35-48.
- Jeong, W. J.(1997). *The Propensity towards New Business Creation of Women*. Master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Kalleberg, A. and Leicht, K. T.(1991), Gende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terminants of small business survival and succe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4(1), 136-161.
- Kerka, S.(1993). *Women and Entrepreneurship*. Eric Clearinghouse on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Columbus: ERIC Digests.
- Kim, Y.H. & Yang, T.Y.(2013), Resaarching Entrepreneurship over the Last Decade: A Challenge for the 21st Centur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5(3), 347-376.
- Kim, Y. O.(1998). *Women's Start-up and Business Management*, Seoul: Korean Women Development Institute.
- Kirkwood, J.(2009). Motivational factors in a push-pull theory of entrepreneurship. Gender 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24(5), 346-364.
- Koellinger, P., Minniti, M., & Schade, C.(2013). Gender Differences in Entrepreneurial Propensit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5(2), 213-234.
- Kong, H. W. & Kim, H. S.(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Orienta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Gender.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1(12), 2223-2244
- KOSI(2007). *A Survey on the Competitiveness of Women's Enterprises*. Seoul: KOSI.
- Langowitz, N., & Minniti, M.(2007). The entrepreneurial propensity of wome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41-364.
- Lee, I. H.(2022). A Study on Social Enterprise Research Trends and Research Methodology: Focusing on Social Enterprise Studies(from 2008 to 2020). *A Study on Social Enterprise Research Trends and Research Methodology*, 15(1), 237-263.
- Lee, H. S.(2015). Entrepreneurship and Gender Strategy Viewed in Terms of Women's Business Start-up. *PNU Journals of Womens Studies*, 25(3), 99-140.
- Lee, S. S.(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the Motivation,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Performance in Women Owned Busines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8(4), 45-64.
- Lee, S. S.(2014). A Content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Using the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49-68.
- Lim, Y. S.(2020). Female Entrepreneurship/Enterprise Research in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Review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42(3), 77-100.
- Masters, R, and Meier, R.(1988). Sex difference and risk-taking propensity of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6(1), 31-35.
- Mayoux, L.(2001). *Job, Gender and Small Enterprises: Getting the Policy Environment Right*, SEED WP 15. Geneva: ILO.
- Menzies, T., Diochon, M. & Gasse Y.(2004). ,Examining vventure-related myths concerning women entrepreneurs.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9(2), 89-97.=
- Minniti, M., Arenius, P., & Langowitz, N.(2005).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04 Report on Women and Entrepreneurship*. Babson College: The Center for Women's Leadership and London Business School.
- Moon, S. J., & Choi, J. K.(200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promotion of Women-Owned Busines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5(1), 61-78.
- Na, J. D., Kim, S. H., & Choe, T. Y.(2004). The Effects of Environment, CEO Characteristics, and Collaborative Activity on the Performance of Woman Start-up Firm. *Asia Pacific Journal of Samall Business*, 26(1), 175-201.
- Nam, G. J., Lee, D. M., & Chen, L.(2019). A Comparative Study on Survival Characteristics of Female Startups and Male Startups, *Korean Women Development Institute*, 100, 125-160.
- Oh, I. H.(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restructuring the power sector and addressing climate change: lessons learned from other countries. *Innovation studies*, 11(1), 97-111.
- Oh, J. H., & Kim, Y. H.(2016). The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Style of Korean Married Women Entrepreneurs: Based on the Work-Life Balance Strateg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8(4), 27-52.
- Park, J. B., & Yang, H. B. (2014).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s of women start-ups in Korea: focused on knowledge and technology based business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9(3), 1-29.
- Park, T. Y.(2017). Discourse Analysis of Female Entrepreneurship in Korean Newspapers: Using NVivo, *Journa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10(1), 127-167.
- Poggesi, S., Mari, M., & De Vita, L.(2016). What's new in female entrepreneurship research? Answers from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3),735-764.
- Rietz, A., & Henrekson, M.(2000). Testing the female underperformance hypothesis. *Small Business Economics*, 14(1), 1-10.
- Sexton, D. L., and Bowman-Upton, N.(1990). Female and male entrepreneu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ir role in gender-related discrimin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1), 29-36.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SMBA). Korean Women Entrepreneurs Association(2007). *Survey of Women's Enterprises in 2007*. Seoul: Korean Women

Entrepreneurs Association.

- Smith, N. R., & Miner, J. B.(1984). Type of Entrepreneur, Type of Firm, and Managerial Motivation: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ife Cycle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4), 325-340.
- Verheul, I., Uhlaner, L., & Thurik, R.(2005). Business accomplishments, gender and entrepreneurial self-imag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4), 483-518.
- Wolcott, H. F.(1992). *Posturing in qualitative research*. In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3-5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Yang, I. S., Jang, M. H., Kim, N. J., & Lee, Y. H.(2004).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Women's Professional Entrepreneurship.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 Yang, H. B., Park, J. B., & Seol, B. M.(2016).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and technology-based women entrepreneurship in Korea. *Innovation studies*, 11(1), 113-141

Study on Characteristic Factors of Female Entrepreneurs for Vitalization of Female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Case Studies

Yun-Sun Kim*

Il-Han Lee**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study based on in-depth interview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capabilities of female entrepreneurs to promote women entrepreneurship. Therefore, in this stud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female entrepreneurs, the main contents of entrepreneurial attitudes (need for independence, development desire, favorable conditions), start-up entry rate, start-up motivation, start-up activities and constrai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ntrepreneurial attitude of female entrepreneurs has a strong motivation for successful management based on a feeling of self-satisfaction, has characteristics that prioritize independence and self-actualization, and favorable conditions for starting a business are important. Second, it was found that women's individual differences from men and social structural factor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entry rate of women. Third, it was found that the most important entrepreneurship motivation for women is the spirit of challenge, self-satisfaction, and the desire to balance work and family. Fourth, female entrepreneurs showed littl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male and female entrepreneurs in terms of resource access, but there was some discrimination in the network. Fifth, the main industries of female entrepreneurs are small businesses, and there is a tendency to be concentrated in industries with low profit margins and low growth and sales. Finally, it was found that barriers to women's entrepreneurship still exis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mainl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experiences and social environments while starting a business and running a business. Second, in the case of female entrepreneurs, there is a need to spread a positive awareness of women entrepreneurship by arguing that the barriers to entrepreneurship unique to women are not high and can be sufficiently overcome. Lastly, although opportunistic start-ups based on women's social experience or management ability in work life are important for women's entrepreneurship,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re needed to promote professional technology start-ups.

Keywords: female entrepreneur, start-up attitude, Start-up motives, start-up activities, constraints

* First Author, Ph.D. Candidate, Chung-Ang University, kysluck01@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lih2114@cau.ac.kr